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3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2040년까지 트럭 이산화탄소 90% 감축 잠정 합의

-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원들이 2040년까지 7.5t 이상 대형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기로 잠정 합의함
- 18일(현지시간) ESG투데이 등에 따르면, 유럽은 트럭을 포함한 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임. 2030년까지 45%, 2035년까지 65%를 줄일 계획임
-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제 대상이 확대된 것임. 기존 대상은 대형 트럭, 대형 버스 등인데, 이번 합의에서 소형 트럭, 시내 버스, 트레일러 등이 포함돼 거의 모든 대형 차량이 대상이 됨

(뉴스스 2024.1.19) 정혜승 기자

### 2. EU, 넷제로 달성 위해 대규모 탄소 포집 계획

- EU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연간 최대 4억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계획임
-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오는 2월 6일에 공개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산업계 탄소 관리 전략'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함. 이번 초안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탄소 관리 목표와 계획을 담음
- 초안에서 EU 위원회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잔여 배출량은 낮어도 2050년까지 탄소 포집을 통해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배출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EU의 탄소 포집 목표치는 현재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포집의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임팩트온 2024.1.19) 이재영 기자

### 3. 친환경·천연·에코... 유럽, 2026년부터 광고문구 사용금지

-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에서 '친환경' '천연' 등 그린워싱 여지를 주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됨
- 17일(현지시간) EU 의회는 명확한 증거 없이 '친환경' '천연' '생분해성' '기후 중립' 또는 '에코'와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탄소상쇄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에 따라 2026년까지 기업들이 이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EU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는 '탄소 상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반영됐다는 분석임
- 이날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년 내로 자국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야만 함

(뉴스트리 2024.1.18) 이준성 기자

### 4. 獨, 기후수당 도입...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시민에 반환

- 독일 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연료 및 난방비 인상이 지속되면서 연정 내 사민당, 녹색당과 야당은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기후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은 기후수당 도입은 다음 총선 이후인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독일은 지난 2021년부터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조치에 활용 중임

(에너지신문 2024.1.24) 조대인 기자

## 1. 환경부,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30% 확대

- EU 등 세계 각국이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데 맞춰 환경부는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환경부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

(전자신문 2024.1.23) 이준희 기자

## 2.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민·관 협의체 발족/해외 항만간 친환경선박 급유 경쟁... 한국은 이제야 속도

-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공급망 구축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빙커링) 협의체가 발족됨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시장 창출과 선제적 공급망 구축 등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여 울산항의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에 속도가 기대됨
- 한편, 글로벌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연료급유(빙커링)가 가능한 항만들을 물색 중임. 국내 항만도 뒤늦게나마 친환경 연료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한스경제 2024.1.18) 김우정 기자

(경상일보 2024.1.18) 권지혜 기자

(이투뉴스 2024.1.18) 김동훈 기자

## 3. 법인세, 연 2천억원 더 깎아준다... 반도체·방산 등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

-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방산 기술 투자 등에 적용하는 세금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대상을 늘림
- 국가전략기술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환원 제철 등이 추가됨
- 또, 신성장·원천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해 가스터빈 엔진, 군사위성체계 기술 등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함

(한겨레 2024.1.24) 박종오 기자

(조선일보 2024.1.23) 김지섭 기자

## 4. 해수부, 친환경선박 건조 비용 최대 30% 지원

- 해양수산부가 오는 3월 29일까지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힘
-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임
- 또,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뉴시스 2024.1.19) 박성환 기자

## 1. H2그린스틸, 세계 최초 친환경 철강 프로젝트 6조4000억원 자금조달 확정

- 스웨덴의 기업 H2그린스틸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대규모 친환경 철강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47억 5000만유로(약 6조9095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이 자금 조달은 주로 부채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H2 그린스틸이 발표한 15억유로(약 2조1819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 라운드 이후 몇 달 만에 이뤄진 것임
- 철강 제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제거하고 청정 수소를 사용하는 방법은 산업적 규모에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H2 그린스틸은 스웨덴 북부의 보덴에 위치한 시설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음
- 보덴의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친환경 철강재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H2 그린스틸은 2030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500만t으로 확대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1.24) 김진영 기자

## 2. 바스프, 中 잔장 페어분트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공장 완공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중국 잔장 페어분트 생산단지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인 엘라스톨란(Elastollan®) 공장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힘
- 해당 공장은 바스프의 세계 최대 규모 단일 TPU 생산 라인으로 무인 운반 차량과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함
- 잔장 페어분트는 바스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완공까지 약 100억유로(약 14조5000억원)가 투입됨

(이투데이 2024.1.23) 김민서 기자

## 3. “스미토모 상사, 이산화탄소 회수 사업 시작… 연 200만t 목표”

-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 상사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짐
-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22일 “스미토모 상사가 이산화탄소 회수 업무를 하는 노르웨이 기업에 출자를 시작하는 등 1년에 20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 회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이어 “여기서 얻은 탄소배출권을 2025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스미토모 상사는 ‘인헤리트(inherit)-카본 솔루션’이라는 노르웨이 기업에 출자를 결정함. 이 회사는 가축의 분뇨 등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뒤 땅속에 묻는 일을 하고 있음

(한겨레 2024.1.22) 김소연 기자

## 4. 아마존, 일본에 20조원 투자… AI 보급으로 데이터양 급증

-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가 19일(현지시간) 오는 2027년까지 일본에 약 2조3000억엔(약 20조 71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설비인 데이터센터 증설과 운영체제 강화에 투입될 예정임
- AWS는 생성 인공지능(AI) 보급 등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1.19) 노정용 기자

## 5. 셸 투자자 그룹, 셸에 기후 목표 설정 압박… 주주제안 제출

- 석유기업 셸(Shell) 지분의 약 5%를 보유한 투자자 그룹이 ‘회사가 더욱 엄격한 기후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주주제안을 공동 제출함
- 녹색 주주 활동가 단체 ‘팔로우 디스(Follow This)’ 주도로 나온 이번 주주제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셸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 이번 주주제안에는 ‘셸이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중기 배출 목표(medium-term targets)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김. 또, 셸이 Scope(스코프) 3까지 포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음

(ESG경제 2024.1.19) 김연지 기자

## 1. 'LG엔솔·삼성SDI 참여' 美 '최대 규모' 태양광·ESS 가동 돌입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활용한 미국 최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함. 지속 성장하는 미국 ESS 시장에서 LG·삼성의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추가 수주 기회의 발판이 마련된 셈임
- 23일 미국 시공사 모텐슨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에드워즈 산본 솔라 스토리지(Edwards Sanborn Solar Storage)'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4600에이커(약 1861만㎡) 부지에 87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3.3GWh의 ESS를 완공해 가동에 돌입함. 태양광 발전소에는 미국 퍼스트솔라가 현지에서 생산한 패널 약 190만 개가 쓰임
- ESS용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중국 BYD로부터 공급받음

(더구루 2024.1.23) 오소영 기자

## 2. 한화·고려아연 해외 수소 역량 강화 맞손

- 한화와 고려아연이 협업을 강화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수소 사업 협력에 힘을 쏟고 있음
-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고려아연은 협력 강화를 위해 취득한 서로의 지분을 의무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면서 양사의 힘을 키우고 있음
- 한화임팩트와 아크에너지가 SK가스와 한국·호주 컨소시엄을 꾸려 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협력 관계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아시아타임즈 2024.1.22) 오승혁 기자

## 3. SK에너지, 베트남 메콩강 그린수소 생태계 개발 '정조준'

- SK에너지가 베트남 껀터 시정부 고위 인사와 회동함. 22일 베트남 통신사 TTXV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동욱 SK에너지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지난 18일 응웬 반 흥 껀터시 당위원회 서기를 만남
- 양측은 건설과 에너지 등 SK그룹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함. 주요 화두는 그린수소 였다고 함
- 이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수소 활용 방안과 글로벌 시장 전망을 설명함

(더구루 2024.1.22) 오소영 기자

## 4. 韓 기후테크 로우카본, 美 최초로 소각장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착수

- 기후테크 기업 (주)로우카본이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가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독자적인 CCUS(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을 적용한 탄소 저감 사업에 대한 승인을 미국 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힘
- 미국 힐스버러 카운티 선출직 위원회(Board of County Commissioners)는 지난 17일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격인 카운티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제안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인 로우카본의 탄소 포집 파일럿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가 시의회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조선일보 2024.1.24) 유병훈 기자

(가스신문 2024.1.24) 유재준 기자

## 5. 현대차, 세계 최대 리튬 중업체와 계약... 배터리 내재화 속도

-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중국 간평리튬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함. 올해 들어 중국 성산리튬에 이어 두 번째 리튬 공급 계약함
- 계약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공급 규모는 밝히지 않음
- 업계는 현대차가 잇따른 리튬 공급 계약 체결로 배터리 내재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평가함

(뉴스1 2024.1.19) 이동희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2024.1.19) 안종열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19(금) ~ 2024.1.25(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중국, 자발적 탄소시장 재개... 재생에너지 논문 수도 EU에 앞서

- 중국이 2017년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재개함.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 22일(현지시각) 베이징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힘
- 중국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의 자발적 탄소시장인 CCER의 거래가 22일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임
- CCER이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으로, 중국 탄소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할당배출권(CEA, Chinese Emission Allowance)을 상쇄하는 역할을 함
-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이번 CCER 시장 재개에 1년 이상을 준비해 왔으며, 거래 주관 기관으로는 중국 베이징 그린 거래소가 선정됐다고 보도함. 운영 초기에는 2017년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로부터 발행된 배출권만 거래 가능하나,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신규 프로젝트들도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임
-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집중할 주요 감축 사업은 삼림 조성, 맹그로브 재배, 태양 열 발전(solar thermal power), 해상풍력발전 등 4가지임
- 현재 CCER 시장에는 중국 국내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중국 국세청은 “향후 국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기후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R&D(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유럽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 연구 및 혁신에서 EU를 추월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 17일(현지시각) 공개된 ‘EU-중국 노출 실태 파악(Understanding EU-China exposure)’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태양광, 풍력발전, 리튬 배터리, 히트 펌프, 탄소 포집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동료 검토를 거친 논문(peer-reviewed publication) 개수에서 선두를 차지함. 2010년 EU가 풍력 외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임
-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EU의 해외 수입 중 22%는 중국산이며,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음. 반면, 주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추세임
- 보고서는 태양 전지 등에서 EU의 중국 의존도는 현재도 높은 수준이지만, 연구 논문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미래 기술 격차와 관련 제품의 수입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가 유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 중인 탈중국 전략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임
- 한편, 보고서는 중국 또한 일부 전략산업 및 핵심기술에서 EU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EU 의존도는 EU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임

(임팩트는 2024.1.25) 이재영 기자